

↑ 코스피 2558.13 (+29.21)	↑ 코스닥 746.95 (+9.05)
↑ 금리 (미국 9년) 2.560 (+0.019)	↓ 환율 (원-달러) 1452.85 (-8.95)

美, 加·멕시코 관세에
국내 수출기업
전략 전면 수정
02



금융위기 악몽 재현되나... 기업 신용 줄강등 '경고음'

美 관세전쟁에 고환율 등 악재 S&P, LG화학·한화토탈 신용 ↓ 무디스, 삼성 등급 전망 '부정적' 에코프로·고려아연 등도 '하향' 유동성 위기 땐 하반기 더 위험

#.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다. 지난해 11월 말 총차입금은 5조4620억원, 부채비율은 1408%에 달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한층 격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잦아들지 않는 '고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고환율에 원자재값·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악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했던 무더기 등급강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등급 줄강등 사태가 유동성 위기로 번진다면 투자나 인수합병(M&A)은 물론 실적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장기화하는 글로벌 화학 산업 침체와 수익성 악화를 등급 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S&P는 전날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

과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LG화학의 화학 부문은 중국발 공급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업황 악재, 무역 긴장 전망 등으로 2025년에도 업황 사이클의 바닥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 S&P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재무지표는 점진적인 설비 투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용 강등 위기에 몰린 기업도 많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긍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10곳이지만,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20곳이다.

신용등급 'Aa2'인 삼성전자는 무디스 평가에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무디스는 전망을 낮춘 이유로 기술경쟁력 부진과 낮은 영업이익률을 들었다. 2차전지 소재 회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고, 신용등급 'AA+'인 고려아연도 최근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S&P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신용등급 유지 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이 악화된 기업 실적과 침체한 자금 조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콘서트 하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공간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복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194곳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총합은 265조605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82조880억원)보다 5.84% 줄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내수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잠재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무주택 한정' 등 규제 전 막차 '줍줍' 2가구에 16만명 몰렸다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시행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대거 몰려

아파트 분양시장은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수요가 집중되며 분위기가 뜨겁다. 수년 전 분양 당시의 분양가가 똑같이 적용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무주택자 한정 등 관련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가세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복수원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리체 I (3차)'와 '복수원자이 렉스비아',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2단지' 등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청약이 가장 몰린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들어선 복수원자이 렉스비아다. 최고 29층, 2607세대 규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2세대 모집에 16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전용 59㎡A 1세대에 7만8096명, 84㎡A 1세대에 8만6273명 등이다.

일단 분양가가 시세 대비 수익원 이상 싸다. 분양가는 59㎡ 4억7380만원, 84㎡ 5억9120만원으로 지난 2021년 첫 분양 당시와 같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59㎡는 작년 10월 7억원에 거래가 됐다. 84㎡의 경우 실거래는 없

었지만 호가가 모두 9억원 이상이며, 올해 1월 5억7000만원에 전세 임차계약이 이뤄지며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규제 전 당침을 노리는 수요도 몰렸다는 분석이다.

복수원자이 렉스비아의 경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정하고도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면서 별다른 제한도 없었다.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가능했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에 위치한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각각 1만6128명, 1만1156명이 청약했다. 상한제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운정중앙 구간까지 개통된 것도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의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3800만원이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의 분양가는 59㎡A와 84㎡B가 각각 3억9550만원, 4억6320만원이다. 두 곳 모두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청약 제한은 없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면 모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기금 50조 신설

정부보증 첨단산업 기금채 발행 초저리 대출, 지분투자 등 지원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

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

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자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더불어민주당, 당·지지사 연결하는 'AI민주' 만든다 /사진 뉴시스
▲ 국방장관 직무대행, 호주 국방장관과 통화... 방산협력 등 논의

▲ 북한 해커 사상 최대규모 탈취 암호화페 빠르게 현금화
▲ 홍준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인형에 불과"

▲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끊겨... 29년 만에 처음
▲ 올해 2058억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

美 생산 늘리고, 타국 물량 대체... 수출기업, 전략 전면수정

加·멕시코 25% 관세 후폭풍

기아, 멕시코 연간생산량 26.8만대 65% 가량 美 수출... 타격 불가피 현대차·기아,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생산량 올려 연 120만대 생산 가능 삼성·LG, 생산지 이전 등 대책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멕시코 티후아나 TV공장. /삼성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를 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했던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에서 연간 약 26만8000대(2024년 기준)를 생산하며 이 중 65%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K3, K4 등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점

유율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차량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아의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아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인근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 공장 합쳐서 연간 70만대가량 생산할 수 있

다. 여기에 조지아의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30만대에서 50만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약 120만대 생산이 가능하다.

기아는 지난 1월 컨퍼런스콜에서 "멕시코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건 2025년 기준 K4 1개 차종 약 12만대 정도"라며 "단기적으로 부과된 관세만큼 추가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생산지 조정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수익성을 훼손할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자업계의 피해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 공장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연간 약 1000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 역시 레이노사와 몬테레이 등지에서 TV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을 연간 약 600만대 이상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의 주요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 진행하던 세탁기 생산을 미국 사

우스캐롤라이나로 옮기는 방안을, TV와 냉장고 등은 멕시코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LG전자는 멕시코 생산량을 조정해 미국 수출 물량을 남미 국가로 돌리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미국 내 공장이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구 박사는 "관세 25% 부과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미국은 자동차가 일상품인 만큼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우선 생산량 조절이나 재고 관리 등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정책에 맞춰 제품별 최적 생산지를 확보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SK, 中 EDA 퇴출 검토... '공급망 재편' 수순

(전자설계자동화 S/W)

트럼프,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中 EDA 미국산보다 50% 저렴 비용 상승, 수익성 악화 불가피



GPT로 생성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전략을 뒤엎고 있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기조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흔들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산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을 검토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중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e et-차이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산 반도체 EDA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내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美 압박 강화... 설계 비용 상승 우려 EDA는 반도체 설계·검증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칩 설계 시뮬레이션과 결과 예측을 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 고도화로 반도

체 설계 환경이 더 복잡해지면서 ED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EDA 시장은 미국과 서구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시놉시스가 32%, 케이던스가 30%, 독일의 지멘스가 13%를 차지하며, 이들 3사가 시장의 약 75%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2023년 기준 중국 EDA 기업의 점유율은 12.7%로, 현재도 15%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유율 차이는 기술력에서 비롯됐다. 미국 기업들은 오랜 연구개발(R&D) 투자로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을 구축했으나, 중국 기업들은 아직 기술 추격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EDA는 미국산보다 50% 이상 저렴해 국내 기업들

이 비용 절감과 기술 다변화를 위해 일부 설계 공정에서 활용해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022년부터 화대구천, 개륜전자 등 중국산 EDA 소프트웨어를 일부 채택해 왔다. 삼성전자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EDA 공급업체 6곳 중 2곳이 중국 기업이며, 개륜전자를 포함하면 7곳 중 3곳이 중국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화대구천의 한국 자회사를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을 위한 수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의 기술 통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EDA 사용 중단이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설계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韓 EDA 기술력 부족... 독자적 생태계 구축 시급

현재 한국의 EDA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0%에 가깝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전략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계 비용 상승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韓, 군사도움 받고도 美에 네배 높은 관세부과... 불공정"

美 트럼프, 美 의회 합동연설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수천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사업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

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Act)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형편없는 지원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정부 부채 절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을 예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의 두 배

다"며 "그리고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미국에 불공평하며, 언제나 그랬다"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경제적 및 정치적 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트럼프는 종종 미국 무역 정책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더 공정한 무역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장과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1인당 국민소득 4995만원... 5.7% 증가

한은, 작년 경제성장률 2.0%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속도치와 같아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624달러로 같은 기간 1.2% 늘었다.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22년 7% 감소한 뒤 2년 연속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

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GNI가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 소득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연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국내총생산·GDP)는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은 4% 상승했지만, 건설업이 2.8%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분기 0.9% ▲2분기 0.8% ▲3분기 0.2% ▲4분기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위축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분기 5.5% ▲2분기 -6.0% ▲3분기 -1.4% ▲4분기 -4.1%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락천사·좀비기업·탄핵정국’ 일룩... 韓 성장 모멘텀 의구심

(투기등급 강등)

“‘떡튀 논란’마저 사치라는데...”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CEO의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 자본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동양·ABL생명을 팔고 ‘엑소더스’ (대탈출) 행렬에 동참할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야마구치은행이 38년 만에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 그는 “한때 외국 자본에 ‘떡튀’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불안한 탄핵정국 속에서 성장동력까지 꺼지면서 먹을 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떡튀 논란도 사치스러움 만큼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신용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즘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 돈줄의 ‘엑소더스’ (대규모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5조원어치를 팔았다.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덕분에 시장에는 ‘추락천사’ (투기등급 신용 강등)와 ‘좀비기업’들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낮 놓고 있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빛에 짓눌리고, 트럼프에 차이는 기업들 ‘신용 경고등’

빛내서 버티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업 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원에서 작년 1분기 2743조원으로 10



코스피가 전 거래일(2528.92)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7.90)보다 9.05포인트(1.23%) 오른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61.8원)보다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년도 안 돼 10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

관세전쟁, 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 한계기업 급증... 주식시장 직격탄 외국인, 올해에만 코스피 5조 매도

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도 증가 추세다. 예정치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은 2023년 3950개나 된다. 2015년 2688곳 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1740조원에서 2400조원으로 38% 증가했다.

이들이 끝은 아니다. 앞날은 더 안갯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

업들까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가 발효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4일을 기해 발효됐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국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기존 교역 물품에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트럼프의 조치로 3국 간 관세전쟁 발발이 현실화했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삼성전자·LG전자·기아·현대모비스 등 400여 개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오는 1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철강 업계(포스코, 현대제철)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8억 달러)보다 4.8% 감소했다. 수

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기업 신용도 흔들릴 수 있다.

◆기업 경쟁력 키울 해법 모색해야

흔들리는 기업 신용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의명을 요구한 국내 한 경제학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부채 축소→공급부족→기업투자 확대→경제 성장 및 기업매출 확대→기업부채 축소’ 같은 레버리징 사이클은 사라지고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기업부채 증가→기업투자 위축→구조조정 지연 및 공급과잉 지속→경제성장 및 기업매출 둔화→기업부채 증가’와 같은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한은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비은행권 자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등으로 한계기업 부실이 현재화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비은행권 중심으로 관련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감소해 우리 주식시장마저 ‘좀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디레버리징 사이클 악순환 초래 비은행권 중심 부실 우려 확산 ‘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시급’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예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예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경제의 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좀비기업 퇴출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허정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업운영보다 자산매각 집중... 사모펀드 민낯 드러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MBK, 인수대금 절반 차입 총당 주요 점포 부동산 매각 후 임대 전환 적자 누적... 자구노력 없이 회생신청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결정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 업계에서는 법원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며 사실상 손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인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 책임론이다. 여기에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이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05년에 설립된 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전경

로,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유통,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무리한 차입매수에 따른 공격적인 인수합병이었다. 당시 7조 2000억에 홈플러스를 사들이면서 절반이 넘는 돈을 차입으로 총당했다. 3조 1000억원의 자금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

달했으며,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7000억원을 총당했다. 여기에 2조 4000억원의 자금을 블라인드 펀드에서 추가로 끌어왔다.

시작부터 잘못된 탓에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깊어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켜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매출이 나던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만을 판단해 점포 20여 개 팔았

다. 이후 매각한 점포를 임대로 돌려면서 지속적인 임대 비용을 만들었고, 여기에 2021년부터 홈플러스가 연평균 2000억원의 적자를 내며 문제가 번져온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보호 조치”라며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최후의 수단인데,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도 있고 잉여 현금도 유입된다고 하면서도 선제적 조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타 업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 의문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곳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기업에는 부동산 자산이 4조가 넘게 있는데 자구 노력 없이도 하루 만에 회생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홈플러스가 정말 펀더멘탈(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그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중 건설업 회생 인가율은 59.5%로 가장 낮았다. 건설업 경우 10건 중 4건은 회생 절차 승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줄줄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유통업계는 후폭풍에 대비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엠베서더호텔, 아윌백, CGV, 빙스, 엔터시스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유통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 지연 등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HDC 아이파크몰, 호텔신라 등이 홈플러스 사용권 중단을 협의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상품권 제휴를 맺은 곳은 약 29개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중단됐고, 신라호텔은 사용 중단 여부를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후 신용등급을 A3-에서 D(디폴트 등급)로 강등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베테랑’ 앞세워 반등 시동... 수익·건전성 승부수



진성원 사장

우리카드는 올사년을 맞이하면서 카드업계 ‘베테랑’을 전면에 배치했다. 지난 1월 진성원 우리카드 신임 사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건전성 지표 개선과 독자가맹점, 독자카드 영업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카드는 전반적인 영업 지표가 부진했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은 카드업계 내에서는 입지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9년 삼성카드에 입사해 경력을 쌓은 뒤 현대카드 마케팅실과 SME사업실, 금융사업실장을 거쳐 오퍼레이션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롯데카드에서는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고문으로 활동했다. 여러 카드사의 핵심 업무를 두루 역임한 ‘해결사’란 평가다.

진 사장은 취임사에서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가 도래했다. 빅테크 및 IT사들과 경쟁이 심화하는 등 대내외 환경에 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절 디지털지원총괄 업무를 수행했다.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디지털 관련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은행 출신 이기수 전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전무 승진과 동시에 경영기획본부로 이동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5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명확한 경영 키워드를 제시하며 우리카드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신임 사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악성채무’ 늘어... 건전성 확보 숙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1.78%다. 여기에 대한대출 잔액을 포함하면 2.45%까지 상승한다.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2.28%를 기록한 데 이어 매 분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유일하게 오름세인 상황이다.

올해는 부실채권(NPL) 해소가 요구된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추정손실’ 단계의 채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카드의 6개월 이상 연체액은 737억원이다. 연간 75.9%가량 증가했다. 이어 3~6개월 연체액은 977억원이다. 전년 동기(869억원) 대비 12.4% 늘었다.

금융사는 연체 기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을 차등 적용한다.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연체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인 셈이다.



판관비 절감 효과에도 ‘불황형 흑자’ 한계 수익·비용 구조 개편으로 지속 성장 도모 신규 고객 유치 등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6개월 이상 연체채권 급증, 충당금 부담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대한대출 증가 속 부실채권 해소 과제

가맹점 210만개 확보, 추가 모집 박차 신규 카드 출시로 고객층 확대 시도 결제 인프라 강화해 빅테크와 차별화



금융상품 취급량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카드의 연간 카드론 누적 잔액은 3조9637억원이다. 전년 동기(3조3335억원) 대비 6300억원 증가했다. 연간 18.9% 늘어난 수치로 카드사 8곳의 카드론 취급액이 평균 9.7%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 자체결제망 구축에 전방위 영업 ‘박차’

우리카드는 올해 신규 고객과 독자가맹점 확보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자체결제망을 구축하면서 영업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첫 독자 상품인 ‘카드의정석’ 3종을 공개했다.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단행하는 등 집중 마케팅도 마련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0월 독자가맹점 200만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12월 독자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이래 약 2년 10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카드는 연간 목표치인 가맹점 210만곳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 60~70만곳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 고객 모집 전망도 긍정적이다. 진 대표가 ‘압축성장’을 시사하면서다. 우리카드는 독자카드 3종 출시 이후 프리미엄 라인업인 ‘디어(Dear)’ 시리즈를 공개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들 사이에선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를 끌어모은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년, 직장인 맞춤형 카드를 출시하면서 연령별 ‘타깃마케팅’을 시도했다. 영업의 초석을 잘 구축했다는 평가다.

진 사장은 “회사의 모든 부분을 즉시 선도사 수준으로 ‘점프업’ 시키기는 힘들다.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통해 전사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왼쪽)와 강원주 웹캐시 대표가 공동마케팅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WONpay
결제가 필요한 모든 순간!

우리페이로
우리WON페이로 새롭게!

실물 카드 없어도
삼성페이, NFC, QR/바코드 결제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WOORI CARD

◆ 반등을 위한 3가지 경영키워드

진 사장은 올해 반등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카드 영업 강화 ▲수익·비용구조 개선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 등 3가지 경영키워드를 제시했다. 경쟁업체가 카드사에서 빅테크·IT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체 경쟁력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3분기 우리카드는 순이익 14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업 카드사 8곳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2조2510억원이다. 전년 동기(2조774억원) 대비 8.3%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물론 판관비를 아끼는 등 모집비용 등을 줄인 효과다. ‘불황형흑자’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카드가 지출한 카드비용은 3767억원이다. 연간 530억원 감소했다. 반면 판매 및 관리비는 1982억원으로 전년 동기(1933억원) 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순이익을 늘렸지만, 수익성 지표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순이익만 놓고 보면 주요 카드사 8곳 중 6위로 중하위권이다.

우리카드는 2025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이인복 전(前) 영업본부장이 승진과 동시에 마케팅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이인복 전무는 독자카드 출범 후 편의점 등과 협업을 성사시키는 등 상표가치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박위의 전무 또한 디지털·IT그룹에서 플랫폼사업본부로 이동했다. 박 전무는 지난해 초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이다. SGI서울보증 재직 시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루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경제계 찾은 여야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파크(Park)1538 홍보관을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李, 중도보수·실용주의 행보 “국가적 차원 투자길 열어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
李 “기업활동 장애요인 최소화해야”
한경협, ‘경제살리기 10대과제’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예정인데,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 성장의) 해법은 성장이고,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야 한다”며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이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한경협에 합류한 네이버와 클라우드, 파이브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쟁점이 있지만, 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한경협 측은 ‘K-칩스법’이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경제위기로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입장도 청취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친기업·친성장’ 강조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 검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간담회
美 철강 25% 관세 해결책 제시할 것
이재명 중도공락 행보 견제 움직임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가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앞세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공락 행보를 적극 견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과 미래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일본과 EU처럼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실증상용설비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콘센서스(합의)가 마련됐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

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전략·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개선할 ‘철강산업 지원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수출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유입을 통한 가공 수출, 외국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포스코 Park 1538 홍보관과 제2후관공장 및 청송대를 방문해 철강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포스코가 대한민국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방문 외에도 ‘우클릭’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제철소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李 지지율, 50% 돌파... 후발주자들 ‘오픈 프라이머리’로 견제

(완전국민경선)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 비명계 등 제안 경선을 언급 부적절... 실현 어려울 듯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야권 잠룡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50% 벽을 넘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 후보 선출 방식까지 제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4일)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 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야권 연대의 협상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진영의 표가 나뉘어 이재명 대표가 0.73% 차이로 낙선한 전력이다. 이에 협상력을 높이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해, 범야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

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민주당은 연대·통합이 아니라 분열했을 때 대선에 패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을 돌아보면 정의당 등 다른 진보세력과 연대했다면 0.73% 차이로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 주자들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얼미터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6%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이에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타 진영 지지층이 들어와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전(全)당원투

표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남아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예 무시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예측도 있다. 거대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연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야5당 원탁회의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ANGELINUS

지방금융, 주주환원 확대로 '밸류업' 가속화

3개 지주 주주환원율 3.3%p ↑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강화 등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 발맞춰
올해 들어 주가 16% 이상 상승

지방금융지주가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밸류업(저평가된 기업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통상 지방금융이 4대 금융지주보다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란 평가에 기업 가치도 낮게 평가받았던 만큼 주주환원율을 빠르게 끌어 올려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5일 각 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33.4%(BNK 30%, DGB 37.7%, JB 32.4%)다. 이는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 평균인 37.6%(KB 39.8%, 39.6%, 하나 37.8%, 우리 33.3%)보다 4.2%포인트(p) 낮다.

지방금융의 주주환원율이 4대금융보다 낮았지만, 격차는 전년보다 줄었

다. 지방금융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3.3%p 상승(BNK +2%p, DGB +8.9%p, JB -1.1%p)했다. 같은 기간 4대 금융 주주환원율은 2.4%p(KB +1.8%p, 신한 +3.6%p 하나 +4.8%p, 우리 -0.5%p) 올랐다.

지방금융의 주주환원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각 지방금융지주가 정부의 '밸류업'에 발맞춰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중간 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의 도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해 실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국내 기업의 주가를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금융주가 대표적인 '저평가주(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주식)'로 꼽혔던 만큼, 각 금융지주는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하며 밸류업에 동참했다. 특히 지방금융은 중간 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

극 확대했다.

전년 대비 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소폭 역성장한 DGB금융을 제외하면 지방금융의 주가는 작년에 평균 47% 상승했다. 4대 금융 평균인 32.6%를 크게 웃돈다. BNK금융과 JB금융보다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곳은 KB금융(54.7%)이 유일하다.

각 지방금융이 올해도 밸류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방금융지주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6% 가량 상승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주환원율 상승이 다소 미진했던 만큼,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선다. 규모는 지난해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난해 연간 규모인 330억원보다 늘릴 예정이며, 이후에도 안정적인 범위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최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GB금융은 전년 대비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치는 6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실적 감소에도 배당 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린 만큼, 배당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천병규 DGB금융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부진 및 배당금 감소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조기에 이행해 대외 신뢰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JB금융은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JB금융이 제시한 목표치는 45%로, 미지급분 추가 배당,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JB금융그룹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차보상 AI음성안내 적용범위 전반 확대

현대해상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AI음성안내 시스템' 적용 범위를 보상처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AI음성안내 시스템은 인공지능 'AI음성봇'으로 자동차사고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성능 강화와 함께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AI음성봇으로 운전자와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과정 등을 안내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예상 보험금과 수리비, 사고 처리 결과까지 안내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만기갱신도 AI를 통해 안내한다.

롯데손해보험 영업 플랫폼 '윈더' 앤어워드 '위너' 수상

롯데손해보험은 영업 지원 플랫폼 '윈더' (wonder)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캠페인' 부문 증권·보험·신용카드 분야에서 '위너' (Winner) 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앤어워드' (A.N.D Award)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산업 시상식으로 디지털 산업에 기여한 혁신적인 광고·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한다. 윈더는 누구나 직접 쉽게 보험을 설계하고 소득을 벌 수 있는 서비스 가치를 통해 보험 권유와 중복 보장 등 기존의 보험에 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교보생명 '사이 좁은' 웹드라마 앤어워드 '위너' 수상

교보생명은 웹 드라마 '사이 좁은 이웃'이 '2024 앤어워드(A.N.D Award)'에서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 대기업 분야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디지털 광고 및 캠페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 사이 좁은 이웃은 상부상조 정신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배우 이주승, 김예원, 김규남, 모델 정혁 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삶을 연기했다.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녹아 있는 상부상조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 직선제 열기 후끈... 조합원 대기줄 "진짜 주인 된 기분"

르포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선거

고령층 참여 속 배당 기대감 높아
10곳 중 7곳 무투표 당선은 '과제'

"정말 깜짝 놀랐다. 투표 시작전부터 조합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었다. 흡사 '오픈런' 같았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문제없이 마무리 짓고 싶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 5일 서울 신길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만난 투표사무원 A씨는 이같이 말했다. 투표 시작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금고를 찾은 조합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 '오픈런'... 첫 직선제에 뜨거운 관심
그중에는 신분증을 놓고 와 집으로 돌아가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날 투표 사무원을 수행한 이 씨는 신길새마을금고 직원이다. 평소 얼굴이 익숙한 조합원이지만 공명선거를 약속한 만큼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이였다.

고령층 조합원의 비중이 높았다. 등산복 바지와 패딩점퍼 등 비교적 편한 복장으로 투표소를 찾았다. 일부 조합원은 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 1층 예금 업무 공간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투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차기 이사



5일 오전 8시30분 신길새마을금고 2층 투표소를 위해 금고를 찾는 조합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김정산 기자

장에 관한 바램이 주를 이뤘다.

투표를 마친 조합원 B씨는 "새마을금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운영을 잘하셔서 배당 좀 하면 좋겠다. 배당 못한 금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우리 금고도 배당을 못 해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 첫 투표 해보니... "진짜 주인 된 것 같다"

"언제부터 이사장을 직접 뽑은 건가요? 지금까지 나만 몰랐던 것은 아니죠? 우편으로 선거 명부를 받고 투표를 하러 왔는데 직접 이사장을 뽑으니, 금고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남다롭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C씨는 투표 대기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첫 직선제거인 만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생소하던 반응이 이어졌다. C씨는 투표 후 금고의 주인이 된 것 같으며 첫 이사장 선거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의 지역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2000억원 미만 금고는 금고별 정관에 따른다. 신길새마을금고는 직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당 금고의 총자산은 3040억원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각 금고의 최고경영책임자다. 조합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00억원 이상 중견 금고는 조합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한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 후보자는 "직선제로 차기 이사장을 뽑는 만큼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며 "조합원의 권리증진은 물론 금고 운영에 관한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했다.

◆ 10곳 중 7곳 '무투표 당선'

올해 이사장 선거에는 전국새마을금고 1101곳이 참여한다. 이 중 지역 금고 734곳에서 단일후보가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금고 10곳 중 7곳의 후보자는 '무혈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서울지역 금고를 살펴보면 193곳 중 144곳이 무투표로 차기 이사장을 선출했다. 조합원이 단일 후보를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중앙선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1시간 단위로 투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오전 7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지역 새마을금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에 있는 관악중앙새마을금고다. 조합원 8043명 중 1239명(15.4%)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에 있는 은평뉴타운새마을금고다. 조합원 5816명 중 213명(3.7%)가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쾌거

GS건설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으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인 '비욘드에이(BEYONDA.)' 웹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선부분으로 비욘드에이 브랜드북이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이 브랜드 매거진인 웹사이트 비

욘드에이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콘텐츠 플랫폼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비욘드에이는 건설업계 최초로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한 웹형태의 매거진이다. 2021년 1월부터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자이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인터뷰 중심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입주민들의 취향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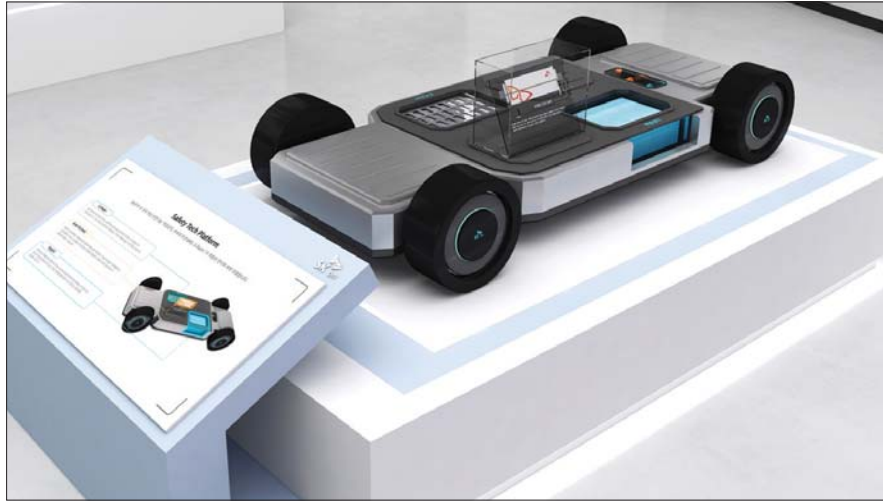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 smahn1@

/김주형 기자 gh471@

액침냉각, 첨단산업 핵심 경쟁력 부상... 시장선점 경쟁 치열

〈AI·전기차〉

발열 억제로 성능·효율 개선
2030년까지 32억달러 시장 전망
SK 등 국내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액침냉각 차세대 무선 BMS 모형. /SK온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기차 배터리 발열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열관리 솔루션 '액침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4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SK, LG, 국내 정유업계등 기술 개발에 뛰어 들고 있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액침 냉각액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32억 달러(약 4조6659억원) 규모, 연 평균 8.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액침냉각은 기존 간접냉각 방식(공랭식, 수랭식)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플루이드)에 배터리를 직접 담그는 기술이다. 발열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냉각 효율성이 가장 높고 비전도성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이나 전기적 손상 위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AIDC와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량 중 30~50%는 열을 가라앉히는데 사용되고 있어 비용과 장비손상, 발열 문제 해결이 과제다.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 공랭식 대비 데이터센터 냉각 비용을 90% 절감할 수 있고 제

한된 공간에 더 많은 장비를 배치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아진다. 엔비디아가 액침냉각시스템 공급사를 찾고 있는 이유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의 경우 게임용으로 개발되면서 전력 소모량이 크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데이터센터에 활용되는 반도체가 늘어나면서 액침냉각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도 고속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침냉각을 통해 배터리 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열 폭주를 억제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충전 중 열 발생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해 충전 시간 단축, 배터리 수명 연장 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무게가 가벼워져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늘어난다.

'액침냉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술 경쟁도 치열하다.

SK엔무브는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액침냉각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23년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 기술을 시연해 실증평가를 마쳤고 현재 기술 적용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일에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액침냉각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스오일은 지난해 썬셔 250도 이상의 고인화점 액침냉각유 '에스오일 e-

쿨링 솔루션'을 출시했고, 한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는 파트너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과 협력해 분야별 특화된 액침냉각 제품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HD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12월 GRC로부터 일렉트로세이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해 국내 데이터 업체와 실증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LG CNS는 현재 액침냉각 기술 연구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수행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액침 냉각 기술은 다양한 고발열 장비의 열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춘 전용 냉각유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산 냉각유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후발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GMO이 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본사에서 '무쏘 EV' 출시를 알리는 신차발표회를 개최했다.

전기차로 돌아온 '무쏘'... 픽업 브랜드 이끈다

KG모빌리티 신차발표회

곽재선 회장, '무쏘EV' 경쟁력 자신
최고출력 207마력... 1회 충전 400km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최초로 사업 투자계획서에 승인한 첫 차량이며 (무쏘라는)이름도 제가 소환했다." (곽재선 회장)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 5일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진행된 '무쏘 EV' 신차발표회에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신차발



곽재선 KGM 회장이 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본사에서 '무쏘 EV' 신차발표회에서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표회와 함께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의 전략을 공유했다.

곽재선 회장은 "무쏘 개발 투자는 물론 이름까지 제가 소환했으며 과거 아쉬웠던 디자인도 예쁘게 완성했다"며 "지난날 우리가 잠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제품에까지 나쁜 과거를 덧씌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점점 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이 남다른 애정을 담은 차량인 만큼 KGM이 내놓은 무쏘 EV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공들여 만든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쏘 EV는 기존 토레스 디자인에 데크와 바디가 하나로 연결된 견고한 실루엣에 전기차의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

무쏘 EV는 전기차의 안전성은 물론 주행가능거리도 확보했다.

배터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재 위험성이 낮은 중국 BYD의 80.6kWh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를 탑재해 일상생활에 충분한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및 복합 전비 4.2km/kWh를 달성했다. 셀투팩 공법으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배터리 팩 설계로 내구성도 효율성을 높였다. 차세대 다중 배터리 안전 관리 시스템(BMS)을 적용해 주차 중에도 10분 단위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소방서로 자동 연결된다.

또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이 적용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 토크 34.6kgf·m의 파워풀한 동력성을 발휘하며, AWD 모델은 최고출력 413마력(ps)과 최대 토크 64.9kgf·m의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또 KGM은 이날 무쏘 EV 출시와 함께 1993년 무쏘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픽업 모델은 '무쏘' 브랜드로 전환하고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은 각각 무쏘 스포츠와 무쏘 칸으로 차명을 변경한다.

무쏘 EV의 사전예약에는 2000명이 모였다. KGM은 올해 목표 판매량은 3000여대로 잡았으며 월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조현범 회장, 구성원 글로벌 소통 강화

〈한국엔컴퍼니그룹〉

주요 회의·공식 석상 영어 사용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임직원간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AI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조직장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석상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영어 공용어 글로벌 언어 원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룹 구성원 5만여명 가운데 약 3만4000명(68%)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들이 언어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그룹 임직원 중 조직장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선 영어로 쓰고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사업장 간 소통, 내부 공유문서 작성 시에도 영어를 사용한다.

조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의 시 가능하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고 경영진



략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임직원에게 수차례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 적용의 현실성·합목적성을 고려해

▲현지공장 생산가능직은 영어·현지어 병용 ▲발표·회의 등 발화·일상 언어는 현지어 자율사용 ▲정부기관 등 대외용 자료·법적 이슈 자료 제외 ▲해외직원 참여 회의시 사업장·공장 모두 영어 사용 등의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그룹 측은 영어 사용이 익숙치 않은 구성원을 위해 자동 번역·해석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HK·번역 전문 서비스 컴HK·사내 메신저 AI 번역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한편 조현범 회장은 2021년 그룹 회장 취임 이후 자율주행 타이어 개발·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디지털 미래 혁신센터 운영·AI 디پر닝과 머신러닝 실습·테크노링 관계 솔루션 고도화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협회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

퍼링센터 흥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 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소통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QR 찍어도 결제 불가”... 시장 곳곳서 상인·고객 불만 ‘폭발’

Q 르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유효하지 않는 QR’ 메시지 속출
고객들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조폐공사 “현행화 진행... 빠르게 조치”
결제·설치 문제... 소비자 불편 확산

지난 1일 출시 첫날 ‘먹통’으로 오명이 씌여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 곳곳에서 기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나는 등 불안한 출발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앱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측은 5일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업데이트 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일 집에서 가까운 방학동 도개비시장을 찾았다. 전날부터 새로 선보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에 5만원을 충전해 장을 보기위해서다. 김씨는 그동안 전통시장에선 카드나 현금 외에 주로 종이로 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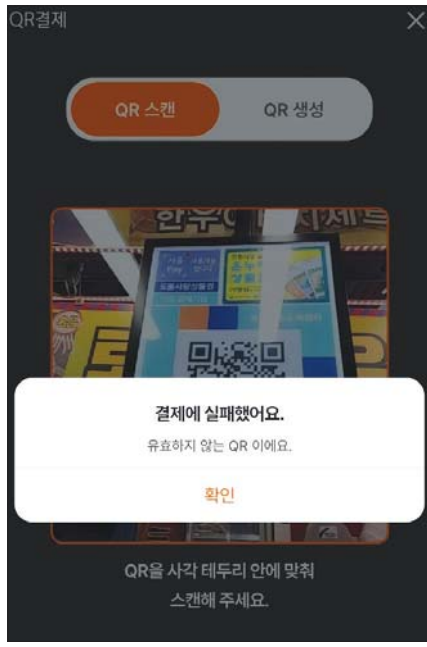
그러나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좀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애플리케이션(앱)을



서울 경동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내려받았다. 10% 할인 혜택도 있어 5만원을 충전하는데 실제로 4만5000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산 뒤 결제 과정에서 북병을 만났다. 가게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댔더니 ‘결제에 실패했어요. 유효하지 않는 QR이예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수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제에 실패했어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

또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인근에 있는 수산물 판매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 QR’이라는 메시지만 나타났었다. 옆을 지나던 행인은 “나도 다른 가게에서 해봤지만 결제가 되지 않더라. 1일부터 통합앱이 가능하다고 해서 앱을 다시 깔았다. 그후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 장을 본 3곳 모두 결제가 되지 않았다. 멀쩡한 앱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산물점 관계자는 “며칠전까지도 QR코드로 (고객들이)다 결제하고 가셨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알 수 없다. 바뀐 앱 때문에 QR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공릉동에 사는 최모씨도 지난 주말 같은 경험을 했다. 최씨는 “동네 시장 3곳에서 새로운 앱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QR코드를 바꾸지 않고 기존 QR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과 가맹점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현행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한 ‘모바일’을 하나로 묶어 지난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가 만들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출시 시기가 두달 늦춰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은 소진공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앱엔 가맹점 찾기 기능,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큰 글씨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충전 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첫 날부터 곳곳

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일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공식 앱스토어에서 새 앱을 내려받고 휴대폰에 깔아 세팅하는 과정에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오픈 첫 날 동시 접속자가 43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는 통합앱 서비스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다.

사용자 Man DRAGON씨는 “앱이 실행도 안되고, 대기해도 접속 불가다. ‘일시적인 문제’ 오류만 뜨고 접근 권한 설정도 안돼 확인 버튼조차 눌러지지 않는다. 빠른 수정 없인 앱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성씨는 “온누리 가맹점 검색이 안된다. 앱이 어설플다. 이전 앱에선 전국 어느 가맹점 검색해도 가까운 거리 순서로 줄줄 검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조폐공사측의 성의없는 답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OMSCO(한국조폐공사)는 고객 댓글마다 “OO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무한 반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 관세피해 최소화... 피해 中企 지원 총력

중기부, 경영 정상화·수출 활로 모색
롯데 장관 “대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는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 등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울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달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울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

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3000개사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150억 투입

중기부,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

중기부가 10개 플랫폼사와 함께 브랜드를 성장 시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해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각 플랫폼사의 상품기획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 ‘첫발’

포드 오토산과 프레스테스트 성공

현대제철이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현대제철은 튀르키예 완성차업체 포

드 오토산과 함께 탄소저감 자동차강판을 활용해 ‘포드 투어네오 커스텀’의 리어 루프 패널을 제작하는 프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 통과로 현대제철은 기존 고로 생산 방식의 자동차강판과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과 고로 쇳물을 혼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고로 복합 프로세스’ 양산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해민 기자 hyem@

에이스침대, 3년 만에 실적 반등 ‘성공’

전년비 6.4%·영업익 662억 기록
프리미엄 제품군 주력 등 ‘주효’

에이스침대가 3년 만에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에이스침대는 2024년 연결 기준으로 3260억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6.4%, 영업이익은 662억원으로 16% 각각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순이익은 659억원을 기록해 28% 늘었다.

회사측은 실적 반등의 이유로 ▲프리

미엄 제품군 주력 ▲체형별 매장 확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다각화 등 세 가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프리미엄 매트리스 라인업인 ‘로얄에이스(Royal Ace)’와 호텔형 침대 프레임 등 제품 고급화에 집중하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숙면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슬리프로노믹스’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김영섭 “본업 아닌 자산 유동화…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

〈KT 대표〉

주파수, 위성, 6G, AI 등 투자 필요 MS와 인적향상 위한 협력 진행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공정적’

KT가 본업과 관련없는 그룹사 보유 자산을 매각해 AI(인공지능), 6G(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투자한다.

KT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AI 및 6G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매각 규모나 시가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수익 호텔 부동산과 임대부동산 등 우리 통신업 본업에 비효율적인 자산은 유동화(현금화)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적기에 유동화해 투자를 늘려 본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KT

이어 “과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지국이 4km마다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부지가 남는다”면서 “앞으로 주파수도 받아야 하고 위성도 해야 하고 6G도, AI도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MS와의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는 쪽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MS의 인재와 KT 자본으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빅테크 의존도에 대해서는 빠른 기술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긍정적이었다고도 말했다. KT는 지난해 본사 인원 중 2700명에 대한 희망 퇴직을 진행하고 1700명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진출했다.

김영섭 대표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며, 외국 인재도 과감히 영입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 후) 22년만에 통신 3사 중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T는 위성 및 양자,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기술로 낙점하고 기술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위성통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지궤도 위성(GEO), 저궤도 위성(LEO), 성층권 비행체(HAPS)를 활용한 여러 계층의 비직상 통신 네트워크(NTN)를 구성해 3차원 공간 커버리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양자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KT는 양자를 이용해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로 양자 인터넷 시대를 열고, 해당 기술로 고객정보 탈취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양자 암호통신은 양자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것으로, 현재 KT는 양자 암호키 생성 속도를 국내 최고 수준인 150kbps까지 끌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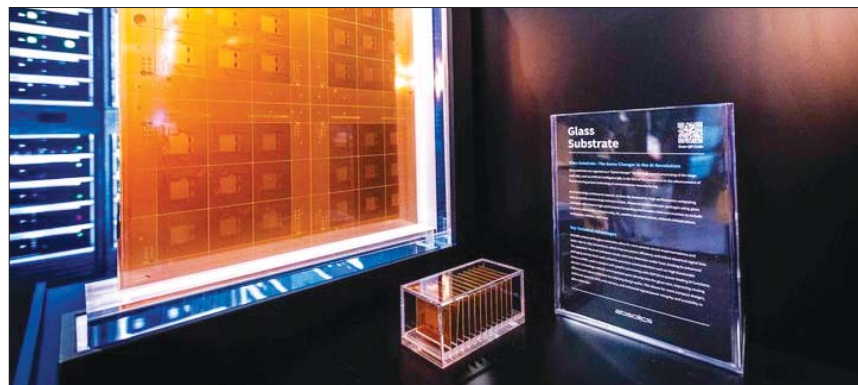
이밖에 AICT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네트워크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반도체 격전지 ‘부상’… 삼성전자·SK 등 대거 합류

SK하이닉스 온바이스 AI 메모리 삼성전자 HBM·AI 반도체 제품 엔비디아·퀄컴 AI 최적화 칩 선배

올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사 부스를 꾸리고 AI 반도체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를 공개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참석해 AI 신기술을 선보였다. 과거 MWC는 통신 분야의 주요 행사로 꾸려졌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등에 AI칩이 탑재되면서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에서 개막한 ‘MW



SKC 글라스 기판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다. /SKC

C 2025’의 올해 기조연설자로는 AMD의 부사장이자 사일로 AI의 창립자인 피터 살린이 참여했다. 사일로 AI는 지난해 AMD가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6억6500만달러를 들여 인수한 회사다.

올해 MWC에서 AI 반도체를 내세운 주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DS부문 유럽법인)와 SK하이닉스다. 두 회사는 각각 프라이빗 부스를 차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등을 중점으로 부스를 구성한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온바이스 AI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하는 기술이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함께 AI 통합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세대 HBM인 HBM3를 처음으로 상용화하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SKC의 글라스기판도 소개된다. 글라스기판은 AI 데이터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소개된다. 유리 기판 특유의 높은 평탄도와 열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존 유리기판 대비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또 MLCC 등 다양한 소자를 기판 내부에 집적할 수 있어 표면에는 CPU·GPU 등 고성능 칩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패키지 두께는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얇아지고, 전력 소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약 40% 개선돼 AI 데이터센터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용 부스를 통해 HBM과 올해 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AI 제품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3E) 등 AI 메모리와 이미지 센서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엑시노스 2400과 엑시노스 오토 V920 등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차량용 반도체도 선보일 예정이다. 파운드리 분야에선 게이트올라운드(GAA) 기술을 각 분야 주요 기업들에게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DS부문은 지난 CES에서 ‘AI 넥서스 : AI 혁신이 융합되는 곳’을 주제로 기업간거래(B2B) 고객 대상의 프라이빗 부스를 꾸린 바 있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도 이에 맞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엔비디아와 퀄컴은 AI 최적화 칩을 내세운다.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용 HBM4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인 GB200과 H200을 자체 개발했다. 퀄컴은 8세대 5G 모뎀-엔테나 솔루션이자 4세대 AI 기반 5G 연결 플랫폼인 ‘퀄컴 X85 5G 모뎀-RF’를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최대 12.5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며, 서브6(Sub-6) 및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를 지원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더욱 강력한 연결성을 보장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소버린 AI 구축하려면… “독립적인 AI 역량 쌓아야”

각국 기업서 역량 강화 움직임 성과 보이며 정부 차원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국가 주도 AI 산업 육성론’을 두고 여야가 “바보의 바보스러운 상상이다”,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게 무지몽매한 생각이다”라며 치고받고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K-엔비디아 성패의 키를 쥔 ‘소버린 AI(자국 중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AI업계에 따르면 K-엔비디아를 통한 조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버린 AI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자국 중심 인공지능이 정부 주

도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버린 AI는 자체 인프라 및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언어와 문화·가치관 등을 반영해 만든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브리프’에서 “오픈AI·구글 등 미국 AI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독립적인 AI 역량을 쌓으려는 각국 기업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ITP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챗GPT

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에 1억 파운드(약 1863억원), 슈퍼컴퓨터에 9억 파운드(약 1조6765억원)를 투입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 중인 AI 패권을 견제하고 영국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춘 ‘브릿GPT’를 개발키로 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725억엔(약 7048억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지원하고 엔비디아와 협력, 일본어 특화 LLM을 개발 중이다.

대만 역시 중국의 AI 공세에 대응하고자 소버린 AI 개발에 수천억원을 투자, 대만인들이 쓰는 번체자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챗봇 ‘타이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0

칠로엔, 메타빌드에 ‘링크뮤직’ 서비스 공급

메타빌드 ‘클레버 원’에 적용

뮤지테크 전문 스타트업 칠로엔은 인공지능(AI)·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 기업 메타빌드에 링크뮤직 배경음악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칠로엔의 기업형 배경음악 AI 에이전트 서비스 ‘링크뮤직’은 메타빌드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휴먼 서비스 플랫폼 ‘클레버 원’에 적용된다.

클레버원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디지털 휴먼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동영상 만들 수 있다. 동영상 텍스트 시나리오, 프롬프트 입력, 동영상 내 등장하는 사물이나 배경 이미지 등에 따라서 AI

가 배경음악을 추천해준다. 클레버원 사용자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고품질 음원을 디지털 휴먼 영상 제작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메타빌드의 디지털 휴먼 서비스 플랫폼 내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기반 배경음악 추천 및 서비스 연동, 최적화 ▲AI와 확장현실(XR) 기술을 접목한 음악 서비스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링크뮤직은 콘텐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배경음악을 API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현정 기자

서학개미, 한달간 美 채권 12.8억 달러 담아 '방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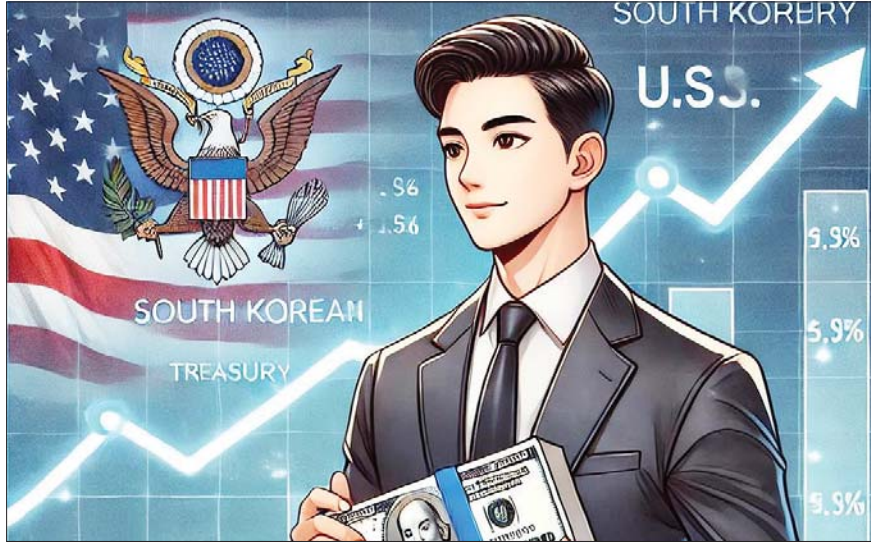
美 채권 순매수액 전월비 1.8배 ↑ 미국채 수익률 한국보다 더 높아 기준금리 역전 1.75%p 확대 영향 금리 정상화때 가격상승폭 확대 기대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다.' 2025년 초 글로벌 자산 운용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식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는 이유로 운용사들이 고객에게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 등 상대적 안전 자산 쪽으로 '방어 투자'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2월 들어 사들인 채권이 전달 보다 두 배 늘었고, 미국 장기채권과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장바구니에 넣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서학개미들은 미국 채권을 12억7641만 달러어치 사들였다. 이는 1월(7억513만 달러) 대비 순매수 금액이 1.8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장기채권 ETF와 우량채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수요도 증가하는 추



Chat GPT로 생성한 미국 채권을 매수하는 국내투자자를 표현한 그림.

세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TIGER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ETF에 219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한, TIGER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H)에는 464억원, ACE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H)에는 315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 투자에 나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 국채로 쏠리는 것은 현재

만기가 같은 국채라도 미국채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1.75%포인트 벌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 누릴 가격상승폭도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채권시장은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행과 경기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미국이 당장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지만 트럼프 정책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마에바쿠진과 라나 사제디 애널리스트는 4일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2%까지 하락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채 금리가 지난달 중 하락한 배경에는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도 있지만, 기간 프리미엄 상승 압력이 완화된 점도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기대 물가가 최근처럼 가파르게 상승했던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 앱으로 발행어음 간편 투자

한국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행어음 적립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제공 중인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발행어음 투자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설정해 매달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정한 금액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지난 2월 24일 서비스 오픈 이후 3일 만에 특판 상품이 완판 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퍼스트 발행어음 적립식' 상품은 만기 시 연 4.55%(세전, 2023년 5월 기준) 수익률을 제공하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토스뱅크와 연금저축계좌와 ETF모으기(주간, 월간)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발행어음까지 모으기 서비스를 추가하여 투자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이복현 “상법 ‘후다닥’ 통과... 총주주 개념 등 명확해야”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우려 표명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뒤따라 절차법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살펴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형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 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한 형식화를 줄이기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제시된 ‘총주주’,

‘전체 주주’ 등의 개념이 기존 법령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규정에 있는 총주주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이 어떻든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논의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본 활용과 구조 개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협력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MBK파트너스 책임론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PEF)의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PEF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 28일 서울 역삼동 현대차증권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안현주 현대차증권 Retail 본부장 전무(왼쪽)와 문태영 코리니 대표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

美 부동산 투자자문 코리니와 업무협약

현대차증권은 지난 28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미국 부동산 및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코리니'(KORINY)와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리니는 2017년 설립돼 뉴욕,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시카고, 시애틀, 워싱턴DC 등 미국 메이저 16개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매각 등 미국 부동산 관련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부동산 대표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증권의 초고액자산가(HNWI) 고객 대상 미국 부동산 시장 정보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VIP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현대차증권 VIP 고객은 고객 맞춤형 미국 부동산 선정 컨설팅 및 현지 대출은행 연결, 변호사 선임, 임대 서비스 관리 및 매각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려아연, 한화지분 헐값 처분... 주주들 손해 ‘배임’ 행위”

영풍·MBK파트너스, 주주대표 소송 “공개매수 진행한 110억 이익 얻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주주대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헐값에 처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배임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넘겨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

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인지하고도 경영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지지를 얻으려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2년 전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매수했던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수준으로,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며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했다면 49억원 손실이 아닌 약 110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에너지는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확보한 반면,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일 종가 기준 한화 주가는 4만4550원으로, 4개월 전 매각가

대비 약 6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현재 가격에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93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를 날려버렸다”며 “3년간의 의무보유약정만 지켰더라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인데도 이사회 절차를 생략하고,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전고체·46파이’ 전면에서… 韓, 차세대 혁신 기술력 뽐냈다

현장르포

LG엔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개
삼성SDI, 글로벌 고객사 확보 박차
SK온, 액침냉각 기술 안전·성능 혁신
포스퓨처엠, 신소재 기술력 과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 삼성SDI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업황 부진에 빠진 K-배터리 업계가 ‘인터배터리 2025’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46(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기술 공개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양산 계획 등 차세대 제품 개발·생산을 통해 침체된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올해 13번째를 맞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한 풀 꺾인 듯 싶었지만 참가자와 관람객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특히 전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갖춘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저마다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면서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세대 46시리즈 첫 공개… 양산 눈앞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단순한 배터리 제조를 넘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최소 5배 높은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와 셀 배열 구조(CAS)’ 기술을 공개했다. 주행거리, 충전속도, 안전성 등 배터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에서 진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5개 주요 존 ▲Hero 배터리 솔루션 존 ▲EV 배터리 솔루션 존 ▲Non-EV

배터리 솔루션 존 ▲미래준비 존 ▲지속가능성 존 등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응용 사례를 공개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오피레이션 역량과 잘 활용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삼성SDI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였다. 4680·4695·46100·46120 등 4개 제품으로 지름은 46mm로 동일하고 높이를 각각 80mm·95mm·100mm·120mm로 다양화시켰다. 고객사의 여러 요구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공급기 위한 전략이다. 전시 부스 한편에서는 삼성SDI의 217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달이(DAL-e)와 모베드(MobED)가 관람객들을 맞이하면서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최주삼 삼성SDI 사장은 “46파이(지름 46mm) 배터리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이미 샘플을 제출했으며 양산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K온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선보이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액침냉각 기술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Thermal Fluids)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게 도와준다. 국내에서는 SK온의 기술이 가장 높게 평가 받고 있다.

SK온 박기수R&D 본부장은 “현재 SK엔무브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모두 적용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 회사와 협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함께 컨택 중이다”고 전했다.

◆‘소재 기술부터 공급망 재편까지’
전시장 곳곳에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과 생산 로드맵을 앞 다퉈 공개했다.

포스퓨처엠 부스는 단연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에는 양·음극재, 리튬, 니켈 등의 샘플과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공구 등 자사 배터리 소재로 만든 제품을 전시했다. 또한 대형 버티컬(Vertical) 미디어월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통한 버추얼(Virtual) 3D 영상을 통해 울트라 하이니켈(Ultra Hi-Ni)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 소개했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했다. 오는 2026년까지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고체 양산 준비도 오는 2027년, 4

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집전체)도 모두 개발한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에코프로도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대비한 신소재 개발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는 파일럿 규모에서 과제 성과가 잘 나고 있어 올해부터 양산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오는 2026년 말 정도에는 양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시장 진출 선언에 K-배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는 평가들을 내놨다.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전구체 프리 양극재(LPF)’를 선보이면서 선제적 양산을 통해 시장 공략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부스 중앙부에 설치한 메인 디오라마에서는 고려아연 자회사 캄코의 세계 최초 ‘울인원 니켈제련소’가 생산하는 황산니켈이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에 공급되고, KPC가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흐름을 알기 쉽게 구현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인터배터리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린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총 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배전변압기 해외 공략 전략적 M&A 검토 중”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은 “초고압 변압기 다음으로 배전 변압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M&A)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균 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취재진과 만나 “작년에 인수한 KOC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기존에 있는 변압기 생산설비를 어떻게 최대로 키우느냐가 관건이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M&A 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배전 변압기 글로벌 확장 M&A로 성장 기회 모색

미국 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 ‘에너지크레스트’에 대한 질문에는 “ESS 제품은 화학과 전기의 만남이라고 본다”며 “배터리를 포함한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해야 대한민국 먹거리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개개의 회사 수익 극대화에 앞서서 ESS 사업 자체를 케도에 올려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내 ESS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구 회장은 “어느정도 케도에 오를 때까지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정권이 변화하더라도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 전력 인프라 같은 부분은 10년, 20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회장은 “미국 로컬 내에서도 LS일렉트릭 전력 제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큰 수주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전 쪽으로 들어가는 미국 UL 인증을 갖춘 곳은 우리나라(LS일렉트릭)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삼성SDI와 현대차 로보틱스랩이 협업한 로봇 ‘달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와 CAS’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승용기자

전기차 정체기 극복… 기술·원가 혁신 ‘열쇠’

LG엔솔,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축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도
SK온, AI 기반 배터리 기술 혁신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구매 감소, 배터리 안전성 문제,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로 꼽았다.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배터리 3사, 도약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터리컨퍼런스’에서는 주요 배터리사의 전문가들이 시급한 업황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환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전기차 시장 캐즘 극복을 위한 사업 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전기차 캐즘의 주요 인으로 ▲경기침체 및 고금리 환경으로 전기차 구매 동인 감소 ▲북미 및 유럽의 정책 변화 및 보조금 축소 ▲높은 전기차 가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을 꼽았다. 정 상무는 “배터리 업계가 다

양한 변동성 속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 향후 3~5년이 제품 경쟁력 확보와 원가 혁신, 유연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골든 타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미드니켈 등 가성비 제품 ▲LFP 기반 솔루션의 고용량화 ▲전통적 공법을 넘어 업그레이드된 제조 공법 적용 ▲3가지 폼팩터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언급했다.

곽현영 삼성SDI 자동차배터리 마케팅팀 팀장은 “슈퍼사이클을 대응하는 xEV 배터리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해 고객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곽 팀장은 “열 폭주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스나 뜨거운 열이 다른 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배출 경로를 정해놓았다”며 “또한 중간에 특수 시트를 적용해 열 확산을 방지하는 신기술을 도입, 배터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고체 기술 개발에 시장 우위

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곽 팀장은 “삼성SDI는 2027년 2분기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밀도를 높이고 크기 확장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진 SK온 부사장은 ‘인공지능(AI) 주도의 배터리 기술 혁신’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김 부사장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이라며 “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상의 “산업은행 이전 국민동의청원, 5만명 조기 달성”

21일 만에 달성... 주민 염원 표출 주최행사, 문자 등으로 참여 호소 SNS 활용, 회원사 방문해 홍보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조기에 5만명을 달성하면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월 5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직접 청원을 등록하고,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과 오은택 남구청장,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지역 청년 등 100명이 현장에서 동의함으로써 시작됐다.

지난 2월 11일 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된 이번 청원은 청원 접수에 필요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9일이나



5만명 동의를 화면 캡처본. /부산상공회의소

앞당겨 21일 만에 조기 달성함으로써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염원이 표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민동의청원 달

성으로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 후 심사를 통해 본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상공회의소는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동의청원 홍보대사를 자처한 양재생 회장은 부산상의 주최 행사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마다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했으며 매주 1만 2000여명의 개인 연락처 문자 발송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했다.

부산상의 사무국도 부산상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 직원이 2인 1조로 회원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인파가 집중되는 벡스코 드론쇼 행사장과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역, 경성대·부경대역, 서면역에도 국민동의청원 홍보 부스를 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 활동을 확대해 왔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역할도 컸다. 올해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원년’으로 선포한 부산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각 구청 및 벡스코 등 산하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지 관할인 남구를 비롯한 16개 구·군도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 동의 참여를 위한 까다로운 인증 등 절차적 문제로 5만명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부산시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와 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될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어렵게 다시 살린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제2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지역 목소리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흥군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500여 명이며, 총 1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과에 12개팀으로 구성된다. 사업소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스포츠헌국 도시 부산’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국 신설은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부산이 최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울산시가 일반산업단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일반산업단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등 11개 유관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유관기관 3개사가 협력해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산단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입주기업체 안전 관리 강화, 안전 대응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항만공사

연매출 3796억... 21년 연속 흑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 3796억원, 영업 이익 1285억원, 당기 순이익 499억원을 기록하며 21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신규 부두 운영에 따른 임대료 증가 및 사상 최대 물동량 달성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증가, 재정 안정 강화를 위한 보유세 검토 및 경장 경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BPA는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해진공, 지속가능한 금융체계 수립

해양 친환경 프로젝트 적극 지원 올해 상반기 3억弗 블루본드 발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지속 가능한 금융체계(Sustainable Finance Framework)를 수립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DNV (Det Norske Veritas)에서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해진공이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지속 가능한 금융 체계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금융 전략을 기반으로 ESG 자금 조달 및 사 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금융 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메탄올 등 무탄소 연료를 활용한 선박 투자,

무탄소 연료 공급과 관련된 항만 인프라 투자, 해상 풍력발전 설치선 투자 등의 해양 친환경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해진공은 지속 가능한 금융 체계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중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blue bond)를 발행할 계획이다.

블루본드는 해양 및 수자원 보호,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친환경 프로젝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달리 해양에 특화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자금 조달은 국제 해운 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도 부합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사의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달부터 ‘포항관광 시티투어’ 본격 운영

광순환 코스, 1박2일 코스 등 구성

포항시는 3월부터 포항의 대표 관광명소와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는 ‘2025년 포항관광 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티투어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박2일 코스를 추가했으며, 35인 이상 맞춤형 코스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했다.

‘광순환 코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일 4회로 운행되며,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스페이스워크를 경유한다.

승강장은 포항역과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로 운영되며, 기존 15인 이상 예약제로 운영되던 방식을 정기순환형으

로 개편했다.

새롭게 추가된 ‘1박 2일 코스’는 첫째 날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호미곶광장 ▲호미반도둘레길 등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하고, 둘째 날에는 ▲스페이스워크 ▲이카리맞전망대 등 북구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북구 지역을 아우르는 1박 2일 시티투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관광객들이 포항에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여행 혜택 가득한 ‘완도 치유 페스타’”

SNS 인증 시 인센티브 지원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스타’를 시작한다.

‘완도 치유 페스타’는 3월부터 ▲완도 치유 페이 ▲6개 유료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여객선 반값 운임 혜택 등을 제공한다.

‘완도 치유 페이’는 3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인 이상 관광객이 완도 관광지를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5만 원(1개 소 이상), 20만 원 이상은 10만 원(2개 소 이상), 30만 원 이상은 15만 원(3개 소 이상), 40만 원은 이상 20만 원(4개 소 이상)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지원한다.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센티브는 누리집 또는 완도해조류센터 일원에서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신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진행

경남 내 12개 시·군과 운영

경남신보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경남도 내 12개 시·군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한다. 해당 시·군은 예산 확보와 지원을 하고, 경남신보는 사업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현재 시 단위는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가 군 단위는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

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분야는 점포 운영, 온라인 마케팅, 메뉴 개발, 안전 관리, 세무, 노무, 법률 등 경영 전반을 아우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경남신보는 2018년 컨설팅 사업 시행 이래 5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수행하며 컨설팅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노하우를 축적해 높은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취임 1주년 정용진 “본업 경쟁력 중심, 성장 드라이브”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 ‘성장 본격재개’ 선언

올해 수도권에 이마트 3곳 개점
2027년까지 추가 3곳 이상 계획
연내 스타벅스 100곳 이상 오픈
SSG닷컴, CJ대한통운과 협력
700여개 물류로 배송지역 확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성장 본격 재개’를 선언했다. 본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8일 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본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내실 있는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장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 기존 주요 계열사는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e커머스·건설 등 지난해 부진했던 사업 부문은 올해 경영 정상화를 목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신입사원 수료식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신세계

표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마트·스타벅스, 외형 성장으로 초격차 경쟁 나서

가장 먼저, 이마트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트레이더스 마곡에 이어 상반기에는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하반기에는 인천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에서만 총 3개의 신규 매장을 열어 외형 성장을 추진한다.

올해 3개 점포 개점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3곳 이상 신규 점포도 열 계획이다. 신규 부지도 5곳 이상 확보해 추가 점포 개점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 프랜차이즈 매장도 20곳 이상 신규 출점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점포는 ‘푸드마켓’ 콘셉트로 차별화된다. 푸드마켓은 지난해 대구 수성점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올 상반기 개점하는 고덕점도 같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장 리뉴얼을 통한 ‘몰 타입 전환’도 계속 확대한다.

스타벅스 역시 올해 100곳 이상의 신규 점포를 개점할 계획이다. 특히, 커피 외에도 차(TEAVANA) 및 다양한 프리미엄 메뉴를 제공하는 ‘더 매장’과 특정 테마를 강조한 ‘콘셉트 매장’ 등 일반 매장보다 차별화된 특화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e커머스·건설 등 부실 사업군,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e커머스와 건설 부문 등 경영 개선이 필요한 자회사는 협력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시 구축한다.

신세계그룹 e커머스 자회사인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 협력해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한다. 현재 SSG닷컴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700여 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에서 새벽배송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과

대구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G마켓 역시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글로벌 플랫폼과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현재 공정거래 위원회에 합법적인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된 상태로, 공정위의 심사 마무리 후 법원이 현물 출자를 승인하면 합법적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세계건설은 지난달 상장 폐지를 계기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정 회장은 취임 직후 허병훈 경영전략실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정 회장은 성장을 위해 성과 중심의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고객만족이라는 그룹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성장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신상필벌에 입각한 인사는 필수”라며 “변화와 도전으로 성과를 낸 조직 구성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며 계속 혁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식품업계 이어 편의점도 제품가격 줄인상

GS25 PB 대패삼겹살 700g 가격
이달부터 9900원→1만3500원으로
이마트24·세븐일레븐도 인상 동참

고환율·고물가 영향으로 식품업계에 이어 편의점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유통업계가 조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 속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자체 브랜드(이하 PB) 리얼프라이스의 ‘대패삼겹살(700g)’ 가격을 이달부터 99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대패삼겹살(450g)’도 기존 7500원에서 95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동일 중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업계 최저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24도 PB 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자체 브랜드 아이미(e)의 ‘쓴·단·짙·향 커피(500ml)’ 가격을 지난달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 1월 자사 PB 제품 ‘세븐셀렉트 컵커피’, ‘헬로맨 컵커피’, ‘앙리 마티스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구체적으로 ‘세븐셀렉트 컵커피(5종)’은 2700원에서 2800원으로, ‘헬로맨 컵커피(6종)’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됐다. ‘앙리 마티스 컵커피(2종)’ 역시 32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편의점에서는 자체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롯데웰푸드의 월드콘·더블비안코·빵빠레·구구콘·설레임은 각각 2200원에서 25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셀렉션’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나뚜루 미니컵’과 ‘바’ 제품은 4800원에서 59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음료 제품도 가격이 조정됐다. 웅진식품의 500ml ‘초록매실’과 ‘아침햇살’은 2150원에서 2350원으로 올랐으며 ‘하늘보리페트’·‘옥수수수염차’·‘오곡누룽지페트’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증가했고, 이 영향이 편의점 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방문 외국인 ↑

현대백, 외국인 매출성장률 60% 대
관광버스 월 180여대, 전년비 3배 증가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평균 30%대를 기록하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률이 올해 들어 60%대로 증가했다. 차량 기준으로 보면 올해 1~2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버스는 18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김포점의 지리적 이점을 꼽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김포공항까지 15분, 인천공항까지 40분가량 소요돼 수도권 내 아울렛 중 공항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울 강남·북도 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주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전경. /현대백화점

관광지와의 거리도 비교적 짧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이 관광객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김포점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강 유람선과 자전거라이딩 등 주변 관광 콘텐츠 역시 김포점 방문객 유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GS리테일, 홍가리비 40t 매입 ‘해산물 촉진’

수협유통과 협력... 어민지원 활동
GS더프레시 540여곳서 판매 확대

GS리테일이 수협유통과 협력해 국산 해산물 소비를 늘리고 어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어민들에게서 홍가리비 40톤을 사들여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 부진 등의 여파로 해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은 상승으로 폐사 위험이 높은 홍가리비를 우선적으로 매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 540여 개 매장에서 홍가리비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유통은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한편, GS더프레시는 이번에 매입한 홍가리비를 ‘홍가리비 2kg’ 기획 상품으로 구성해 이달 11일까지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국산 해산물 소비 촉진 활동이 어민 지원은 물론, 고물가 시대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리테일 김경진 신선상품기획(MD) 부문장은 “어민과 유통사가 긴밀히 협력해 국산 해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해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어민을 지원하고, 고객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KT&G 상상마당 흥대 콜리와 ‘곽철이’ 팝업

KT&G 상상마당 흥대가 봄 시즌을 맞이해 주식회사 콜리와 함께 인기 캐릭터 ‘곽철이’ 팝업스토어를 오는 3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곽철이’는 윤택있는 동작과 특유의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오리캐릭터로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실을 풍자하는 명량한 블랙 유머를 통해 젊은층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다양한 콜라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곽철이 블루밍 데이(Blooming Day)’라는 주제로 KT&G 상상마당 흥대 디자인스퀘어에서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이번 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 60여종을 포함해 패브릭과 피규어, 리빙 등 총 111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갤러리아백 “색다른 리빙제품 한자리에”

서울 명품관서 ‘나인틴피세니’ 팝업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에서 이달 13일까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나인틴피세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나인틴피세니는 해외 다양한 리빙 브랜드의 주방 식기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수입해 선보이는 편집숍이다. 독특한 색감과 디자인의 제품 및 국내외 작가들과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브랜드 엔케이 암스테르담 ▲스페인 브랜드 마리아 델라 아라우조 ▲벨기에 브랜드 벨 포



나인틴피세니 편집숍에서 선보이는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관계자 모습. /갤러리아

터리 등 수입 브랜드 제품들이 마련됐다.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로 신선하면서도 희소성 있다는 게 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알테오젠, 글로벌 바이오시장 공략... 신약·시밀러 확대

황반변성 신약 'ALTS-OP-1' 출원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주' 확산
ALT-B4 수출, 머크·다이이찌 협업
1550억 유상증자... 시설 확충 추진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 신약 후보물질 'ALTS-OP-1'에 대해 해외 특허 출원을 확보했다. 특허협력조약(PTC)에 의한 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ALTS-OP-1은 이중 항체 치료제로, 혈관 내피세포의 성장인자 VEGF와 혈관 발달을 조절하는 단백질 수용체 Tie2를 동시에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발생

하는 질병인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한다.

회사는 해당 약물 개발에서 기존 단일 항VEGF 약물의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항체 유사 신규 모달리티를 적용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시력 개선 효과까지 높이는 등 차별화에 주력한다.

알테오젠과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신약개발에 앞서 바이오시밀러 개

발로도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ALT-L9'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알테오젠은 지난해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ALT-L9'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밖에 '테르가제주'는 알테오젠이 자사 기술력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제품이다. 이 물질은 국내 최초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후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16개의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서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주요 대학병원으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테르가제주는 핵심 물질로 'ALT-B4'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알테오젠은 ALT-B4 기술수출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다진다.

실제로 지난해 말 ALT-B4를 기술수출한 파트너사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 산쿄로부터 계약금 2000만달러를 수령했다. 양사는 ALT-B4를 활용해 ADC 치료제 '엔허투'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한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도 ALT-B4 기술을 공급해 왔다. 머크는 현재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핵심 의약품 국가에서 ALT-B4 기술을 도입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는 지난해 11월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올해는 제품 발매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내놓는 경우, 알테오젠은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등으로 매출 측면에서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알테오젠은 실적 개선을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충하는 전략도 펼친다. 지난달 생산 공장 건설 및 본사 이전 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목적으로 15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라며 "기술력에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가능해 진다면 원가 절감, 안정적인 공급망 등 여러 이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코스맥스, 유통 전문가 허민호 영입... K뷰티 혁신 속도

올리브영·온스타일 이끈 경영 전문가
글로벌 사업 확장·신규사업 전개 박차
연매출 3조 목표... ODM 1위 입지 강화



부터 10년간 CJ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에는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허 민호 부회장은 CJ 올리브영 재임 기간동안 화장품 유통 채널의 기반을 닦은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올리브영 단독 입점 브랜드를 늘리고, 자체 브랜드(PB)를 확대했다. 그 결과, 취임 첫 해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취임 당시 40개에 불과한 매장수를 1100개까지 늘리는 등 올리브영의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허 민호 부회장은 독보적인 올리브영 성과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 산업에도 적극 대응한 탁월한 경영인으로 꼽힌다. TV 홈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확장되는 유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CJ ENM 커머스부문에서 CJ 온스타일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당시 업계 처음으로 TV 홈쇼핑과 온라인몰을 통합한 'CJ 온스타일'을 선보여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했다. 또 새벽배송 등 물류 서비스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CJ ENM 커머스부문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 그룹은 허 민호 부회장과 함께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 글로벌 K뷰티 영토를 넓혀 연간 매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허 민호 부회장은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의 향후 10년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글로벌 고객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며 "혁신과 속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K뷰티 성장 동력의 중심에 코스맥스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케미칼 통증 치료제 라인업 확대

비아트리스와 '공동 판매' 계약

SK케미칼은 다국적 제약사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리리카, 뉴론틴, 세레브렉스 등에 대한 공동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전체 병원 대상 유통과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 마케팅을 맡게 됐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 마케팅은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담당한다.

말초와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뉴론틴' 등은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SK케미칼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한층 다양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멤버십 '뷰티포인트' 재단장 셀트리온 'ADC 항암 신약' 美서 임상 속도

포인트, 브랜드 구매 없이 자유 사용

아모레퍼시픽이 통합 멤버십 '뷰티포인트'를 전면 재단장해 새롭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 통합 멤버십 제도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뷰티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브랜드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6개월 주기로 운영되는 '뷰티포인트' 제도는 실적 구간 달성 시 즉시 보상을 지급해 매년 최대 10만 포인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뷰티포인트 웹사이트는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제공한다. 뷰티포인트의 새로운 슬로건 '아름다움의



아모레퍼시픽 통합 멤버십 '뷰티포인트' /아모레퍼시픽

포인트를 발견하다'를 도입해 뷰티포인트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 뷰티 경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운영해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측 관계자는 "뷰티포인트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험의 지점(포인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T-P70' 美 FDA 1상 IND 승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 'CT-P70'의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 시험계획서(IND) 승인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을 통해 암 환자에서 단계적으로 약물 용량을 증량해 최대 내약 용량(MTD)을 확인하고, 약물 안전성, 면역원성, 초기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자 투여는 올해 중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암세포에서 활성화돼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한다. 셀트리온은 CT-P70을 비소세포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은 앞서 시험관, 동물실험 등 비임상 연구를 진행해 폐암, 대장암, 위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형암 모델에서 CT-P70의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 치료지수 측면에서도 임상 단계의 경쟁사 파이프라인을 능가하는 높은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같은 기전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CT-P70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동개발한 신규 페이로드 'PBX-7016'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PBX-7016은 낮은 독성과 높은 투여량을 갖춘 플랫폼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약물의 종양 내 침투 효과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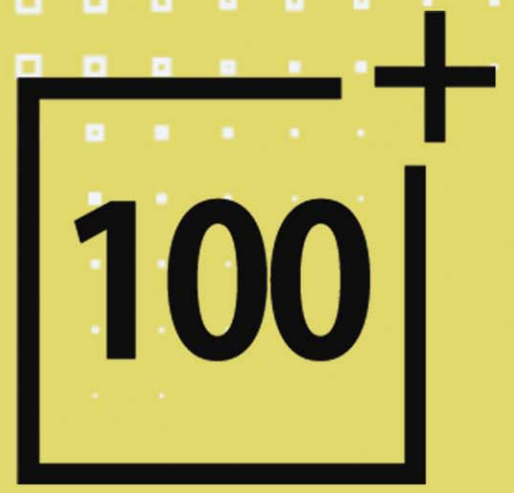
동아제약

"구취·구강건강 한번에"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 출시

동아제약은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은 구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황화수소(썩은 계란 냄새의 원인)와 메틸메르캅탄(썩은 양파 냄새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데 특화했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을 사용한 직후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 모두 90% 이상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사용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두 물질 모두 80~90% 감소율을 유지했다. 이번 신제품은 구취와 함께 구강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불소 성분이 충치를 예방하고, 덴탈타입실리카 등의 성분이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4일 (화) 한국강소기업협회, 우리은행

우리은행-강소기업협회, 기업 지원·발굴 맞손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오른쪽)과 김영식 한국강소기업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iM뱅크, '행복한 밥상' 행사... 800인분 식사 제공

iM뱅크는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2025년 첫 무료급식 행사인 '행복한 밥상'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iM뱅크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iM뱅크 임직원 및 대학생 홍보대사 4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약 8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며 따뜻한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iM뱅크



동아오츠카, 46주년 창립기념식... 친환경 경영 강화

동아오츠카는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 동아오츠카 본사에서 진행된 46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무라벨 제품 확대, 플라스틱 경량화, 친환경 설비 투자 개시 등을 통해 환경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아오츠카 임직원들이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이화의료원, 이대혈액암병원 진료 개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4일부터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대혈액암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대혈액암병원은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등 난치성 질환인 혈액암을 전문 병원이다. 문영철 이대혈액암병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진료개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네이버, 신입사원 공개채용

네이버는 5일부터 오는 17일 오전 11시까지 네이버 커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올해 공개 채용에서는 네이버를 포함해 네이버 클라우드·네이버페이·스노우 등 4개 법인의 4개 전 직군에 걸쳐 신입사원 지원자를 모집한다. 2026년 2월 이내 대학(원) 졸업 예정이거나 경력 1년 이하라면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각 전형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들은 7월 중 입사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반도체산업協, 송재혁 회장 취임... “특별법 등 현안 해결”

〈삼성전자 DS부문 CTO〉

송 회장, 반도체 생태계 강화 포부 “협력 환경 조성... 인력양성 지원”

송재혁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제 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사장은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팀 코리아'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송 신임 협회장은 199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D램 PA팀, 메모리제조센터, 플래시 개발실장 등을 거쳐 현재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송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과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5일 제14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다”며 “우리가 믿고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연구 개발을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내놨다. 송 신임 회장은 “소부장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어, 팀 코리아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신임 회장은 반도체 산업을 야구에 빗대어 한국 기업들이 글

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야구의 저변이 10배, 100배가 크지만 우리나라가 주자를 내보내고 희생 번트를 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로인데, 그들이 약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 미래 기술 발전의 혁신으로 이뤄간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20년 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패처럼 결승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부터 제13대 협회장을 맡아온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과 사장은 “돌이켜보면 코로나19와 유례없는 다운턴을 겪으며 반도체 산업의 격변기에 있었다”며 “임기 동안 풀지 못한 숙제는 차기 회장님과 집행부에서 통찰력과 해안으로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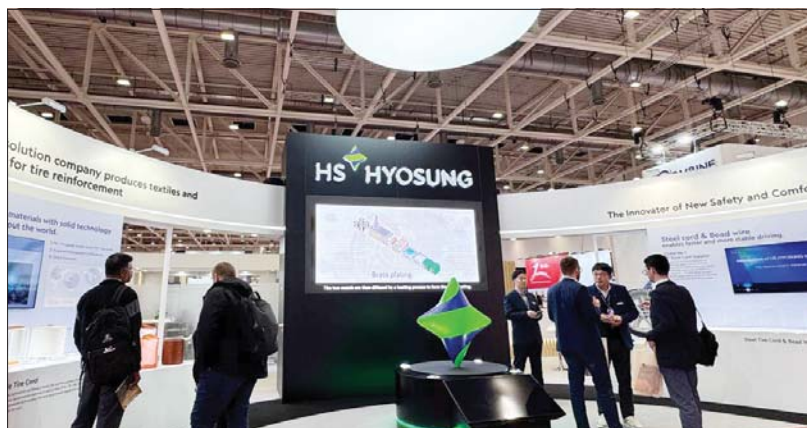
HS효성첨단소재, 글로벌 무대에서 소재 기술력 뽐내

‘JEC WORLD 2025’ 참가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 등 소개

HS효성첨단소재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선보인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오는 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5’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WORLD 2025’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 그룹으로 분리되고 ‘HS효성첨단소재’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첫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들을 통해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렉스’를 알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가 4일~6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5’에 참가했다. /HS효성

지난 2020년에 이어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에 두 번째 참가하는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경량화 및 연비개선에 도움이 되는 초고강력 타이어 코드, 타이어 핸들링 등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초고탄성 타이어

코드 등 다양한 타이어보강재 제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HS효성첨단소재의 기술력과 품질을 알리고 고객과의 영업·기술 미팅을 통해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3년부터 ‘JEC WORLD’ 전시회에 참가해왔다. 탄소섬유 전방산업의 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구조재, 송전용 전선심재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100여개 고객사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또한 방탄복, 방탄헬멧, 방탄차량 등 방탄 용도에 쓰이는 한편 5G 등 광케이블의 보강재, 자동차용 호스 및 벨트 등 다양한 산업 및 용도로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알렉스’ 제품들도 함께 전시한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HS효성첨단소재로 새롭게 출범한 후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인 만큼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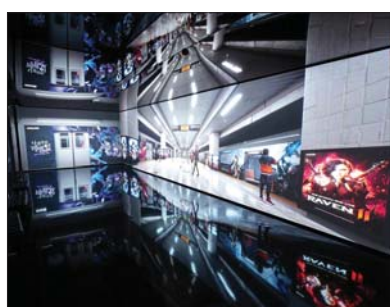
넷마블문화재단, 게임박물관 개관

한국 PC게임 주제 첫 기획전

넷마블문화재단은 넷마블 사옥 지타워 3층에 ‘넷마블게임박물관’을 개관하고 첫 기획전 ‘프레스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게임의 역사와 가치를 재정립해 게임 산업 및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관됐다.

‘넷마블게임박물관’에 전시된 소장품은 총 2100여점으로 초기 콘솔 게임기부터 현재까지 게임기 300여점, 게임소프트웨어 1300여점, 주변기기 및 기타 소장품 등 500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700여점은 시민과 사내 기증으로 수집됐다.



넷마블게임박물관 미디어월 대표이미지.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박물관의 첫 기획전은 ‘프레스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로 진행된다. 한국 PC 게임의 역사를 키워드와 시간순으로 돌아보고 이를 통해 그 시절의 게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조명한다. 기획전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정책기획과장 박정원
- ◆해양환경공단 ◇보임 △안전경영본부 인재경영처장 하창욱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임성오
- ◆이투데이피앤씨 △미래설계연구원장 조성권
- ◆위키리크스한국 ◇부국장 승진 △편집국 금융증권부 최낙형

부음

- ▲임태환씨 별세, 강중업씨 남편상, 임남규(효명씨 대표이사)·임용수(신한카드 광주고객센터장)·임승현(배승총무부장)씨 부친상, 김은정(나라기획 대표이사)·주선진(문산중학교 교사)씨 시부상 = 5일 오전 12시35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7일. 062-527-1000
- ▲이규선씨 별세, 이경희·이영재(전 경

인일보 편집국장)·이영철(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씨 모친상, 김성철(전 시멘스 상무)씨 장모상, 이동훈(지니스커뮤니케이션 팀장)·이창훈(CJ ENM 대리)·이광훈(뉴욕건축사사무소 샵 건축가)씨 조모상 = 5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031-219-6975

▲김윤식씨 별세, 신동식·동홍·동예씨 모친상, 최동순·홍종분씨 시모상, 반구섭씨 빙모상, 신항섭·현아·하경·하림·하은·반무경씨 조모상 = 4일, 화성함백산 장례식장 접객실 3, 발인 7일. 031-293-4244

▲허홍주씨 별세, 허종일(전 태안군보건의료원장)씨 부친상 = 5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7일. 032-517-0710

▲맹성순씨 별세, 맹현균(CPBC 기자)씨 부친상, 오수정(CBS 기자) 시부상 = 4일,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7일. 02-2030-4444

집은 왜 신분이 되었나



이수준 역
부동산 수첩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주거지는 곧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왔다.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산이자 권력이었고, 이를 차지한 자가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인 팔라티노 언덕은 귀족과 황제들이 거주하는 최상류층의 주거지였다. 평민들은 '인술라(Insula)'라 불리는 공동주택에서 살았다. 인술라는 오늘날의 원룸 건물과 비슷한 형태로, 1층에는 상점, 위층에는 다층 주거 공간이 있었고 늘 화재와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다. 부유층은 이런 불안정한 환경을 벗어나 언덕 위에 대저택을 지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합부로 집을 지어서 들어올 수 없도록 주택 간격과 경관을 유지했다. 즉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고 도시내의 계층 간 분리를 극대화한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양의 중심이었던 사대문 안은 양반들이 거주하는 핵심지역이었다. 그 시대를 지

배하던 풍수학적 가치로서는 종로와 북촌이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한강과 청계천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았고, 남산 아래 남촌 지역이나 청계천 하류에는 하층민들이 거주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인류는 지형적·경제적 차이를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해서 사회적 위계질서를 강화 시켜왔다.

이러한 패턴은 현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첼시, 도쿄의 미나토구처럼, 세계적으로도 특정 지역이 경제적 신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의 풍수학이 아닌 현대의 경제학적 요소들, 주거지가 제공하는 교육, 네트워크, 문화적 자본이 그 가치를 배가시키고 이는 곧 반포의 아파트 한 채가 수도권 외곽의 여러 채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방은 호황기에도 침체기에도 서울과는 양상이 달랐다. 지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의 노력에도 임대수요, 인적 네트워크, 생활 인프라의 차이를 좁힐 수는 없었다.

수도권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지방 대다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부동산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땅은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논리가 통했던 이유는 인구 피라미드가 명확히 10년 뒤의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감안한 최소한의 통화 가치방어의 기능조차도 불안한 형국이다. 줄어드는 인구는 서로 유치경쟁을 펼치는 서울과 지방 가운데 앞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투자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기회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는(買) 것과 사는(生)는 곳은 분리할 수 없다.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밸류업 정책, 주총 슈퍼워크 앞에서 무색



허정윤
(자본시장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결국 주주가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정작 주주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언제쯤 개선될까.

올해도 예외 없이 주주총회가 3월 마지막 주에 몰려 있다. 이른바 '슈퍼워크'다. 3월 26일 하루에만 174개 기업이 주총을 열고, 3월 25일 71개사, 3월 24일 35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주총 분산'에 대한 필요성

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출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3월 마지막 주 주총 개최 비율이 2022년 47.0%, 2023년 55.5%, 지난해 68.4%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는 40~50개, 많게는 수백 개 기업에 투자한다. 주총이 한 주에 몰리면 이들이 모든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마주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같은 날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의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개인투자자 역시 주총이 같은 주에 몰려 있으면, 관심 있는 기업 몇 곳을 겨우 챙기는 게 전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작 그 기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주총 출림 현상이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다.

주총이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자투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만들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진정으로 주주 가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전자투표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주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주총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주총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2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48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60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4년생 금전거래는 차라리 주는 것이 좋다.
- 소** 3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49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61년생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73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85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 호랑이** 38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50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이 없다. 62년생 상대의 손실로 인해 나도 손실이니 도라라. 74년생 우물을 찾았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하다. 86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
- 토끼** 39년생 종신토록 양보해도 백 보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51년생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에 빠지지 말라. 6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맡으니 피곤. 75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가 필요. 87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 염** 40년생 아이디어로 이름을 얻는다. 5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64년생 뒤늦은 도박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8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 뱀** 41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53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안다고 했다. 65년생 부모님의 지갑도 생각해 줘라.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89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한다.
- 말** 4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54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6년생 허망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7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90년생 화분의 꽃이 피었으니 곧 좋은 일이 있겠다.
- 양** 4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5년생 영업으로 꾸준한 이익이 온다.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91년생 타인의 이성에 유혹됨을 벗어나야 할 터.
- 원숭이** 4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6년생 달리기만 하면 앞밖에 보이지 못한다. 68년생 지인에게 손익을 너무 따지다 손실. 8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9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되니.
- 닭** 45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57년생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날. 69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81년생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93년생 죄 없는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버릴 수는 없다.
- 개** 4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초행길의 산행은 조심해야. 70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도 둘러보자. 82년생 맞서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면 숙여라. 9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 돼지** 47년생 자식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59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 71년생 모아 둔 비상금이 바닥이 난다. 8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95년생 연인에게서 결혼하자는 소식이 올 것이다.

김상회의四季

환갑 청춘



요즘은 환갑이라는 말이 무슨 고어처럼 느껴지는 시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탓이 제일 크겠지만 환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야말로 오울드~ 한 것이다. 환갑(還甲)은 세는 나이로 61살, 만 나이로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유래했고 회갑(回甲)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갑(甲)'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으로 60년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간지干支해가 돌아오므로 환갑이나 회갑은 육십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조선 시대를 비롯한 근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짧았기 때문에, 장수를 오복의 하나로 여겼던 정서상 사람으로 태어나 환갑을 맞이하는 것은 감사에 속했다. 당연히 환갑을 맞이하여 생일도 성대히 치렀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와 친척들, 온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서 축하해 주는 그야말로 동네잔치 회갑연을 치르는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영양이나 경제상태가 우월했던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고 양반들은 53세에서 59세 정도였다는 출판 내용을 볼 때 환갑을 맞이한다는 것은 분명 축하할만한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2019년도 WHO 통계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90세를 훨씬 더 넘기는 어르신들이 부지기수다. 영양 상태도 좋고 의료수준도 높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보이고 평균 수명 80세 시대에는 노인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체력도 능력도 중장년에 속하여 노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환갑 이후는 어떻게 보내야 보람될까. 그저 환갑청춘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영양제만 찾아다니는 시간이어야 할까? 세상이 나와 내가 연결된 인드라망인 것을 알며 자리아타의 마음으로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생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8	5	2	6					
								1
3						8	7	
	3		6			9		
8		6	3		9			5
				4			1	
	7	8						3
5								
			4	5	7			2

	4		6					7
2		9	5					4
						8		
					3		1	6
	1							3
7		8		5				
					7			
1						2	7	5
	6					3		2

8	2	1	2	9	7	8	6	9
9	7	2	8	6	8	1	2	9
8	6	9	2	9	1	8	2	7
2	1	8	7	8	2	9	9	6
9	9	2	6	2	8	7	1	8
7	8	6	9	1	9	2	8	2
2	2	8	1	7	6	9	9	8
1	9	9	8	8	2	6	7	2
6	8	7	9	2	9	2	8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홍문표 aT 사장 “식량안보 확립·식품영토 확장 주력”

언론설명회 개최... 정책방향 공유
기후 적응형 신식품 육성 지원
온라인 시장 등 직거래 활성화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 정책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aT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 덴마크 등 북구 지역의 사례를 들고, 농업·농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5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2025년도 aT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aT가 향후 국가·농어민을 위해 한국 식품영토를 확장하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올해 해수담양의 안정적 구축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사장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복지의 중심이 농촌과 농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몇 대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식품)"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먹거리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인식 못 하는 게 안타깝다"며 "식량안보 확립 및 식품영토 확장을 통해 비로소 스칸디나비아반

도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농수산물식품의 수출확대가 곧 대한민국의 수출영토 확장으로 직결된다는 게 홍 사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품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유통구조 간소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홍 사장은 "농촌진흥청이 신식품종을 개발하고 우리가 (판로 확보 등을) 도울 것"이라며 배추·딸기 등의 품목에서 7~8월께 새 품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aT는 포도(글로리스타), 파프리카(미니·벨), 딸기(골드베리), 배(신화) 등의 기후 적응형 신식품종의 육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현행 4~5단계를 2~3단계로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온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홍 사장은 "딸기 하나 팔려면 유통비에 휘발웃값에 이런 저농민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T는 농식품부와 함께 온라인도 매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 온라인직거래장터의 신설도 장려하고 있다.

aT는 올해 농산물의 비축 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강원권에 신규 저온비축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기지는 전라·경상·충청 3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채소류 및 곡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져 수급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aT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밀·콩 등 주요 전략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공공비축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펼친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계청·기상청 등 2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선제적 수급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체계 확립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 신규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해 콜드체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 기업 1000억 금융 지원

내달 14일까지 대상기업 모집
최대 10년간 1%대 저리 융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

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판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 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농어촌공사,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데이터 개발·활용 항목 고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 행정 ▲인프라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한 점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

성해 기획재정부 데이터 협업과제에 선정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기반 저수지 수위변화 예측 및 수문조작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홍수 위험을 사전에 전파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권병태 디지털혁신처장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은 국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공사 업무 전반에 데이터기반행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미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 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

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 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5년 평균 97.27점 '우수'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 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품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행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국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전자책 자료 제공 및 소통 채널 상시 운영 등 국민 눈높이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 작년 사교육비 39.2조 역대 최고... "강력 대책 강구해야"
-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 ▲ 홀덤펍인 줄 알았는데 불법 도박장... 3개 업소 적발
- ▲ 환경부, 3월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평대리' 선정

사진 뉴스

- ▲ 최면진정제·항불안제 5250알 '셀프 처방'...의사 등 적발
- ▲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5년간 400억 넘어... 작년에만 29억



정용진 회장
취임 1주년 맞아
'성장 본격 재개'
L1



Life

알테오젠
신약·시밀러 확대
글로벌 공략
L2



맞춤형 진로설정, 장기 멘토링 취업준비 청년들 체계적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세분화, 단계별 참여 유도 직무탐색 등 6개월간 멘토링 기회 사업목적 맞는 현금사용 모니터링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내용

만 19세~34세 미취업·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 단계별 진로설정 프로그램
자기이해·진로탐색·직무구체화·구직·취업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 맞춤 지원
- ✓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와 6개월간 장기적 직무탐색 기회 제공
- ✓ 청년수당 사용자 모니터링
부적절한 현금 사용, 사용불가 항목 이력 등 사업목적에 맞는 현금 사용 심층 모니터링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올해부터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2023년·2024년엔 구직·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했다면, 올해는 청년 진로설정 단계를 세분화해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설정 단계를 ▲ 자기이해 ▲ 진로탐색 ▲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 등 4단계로 구분해 보다 체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위해 15개 각 자치구별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 현직자들이 청년수당 참여자

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단발성·일회성으로 끝나는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6개월간 장기적으로 멘토와 소통하며 직무탐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수당 기 참여자를 포함한 기업 현직자들을 섭외해 취업·창업·수험·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멘토풀을 구성한 뒤, 청년수당 현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참여자들이 청년수당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맞고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 현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나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외에 현금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청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RISE' 참여대학에 565억 투입

지역-대학 동반성장 참여대학 모집 AI산업, 인재양성 핵심... 글로벌 허브로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 참여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사업에서 AI 산

업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해 서울을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65억원으로, 대학별 최대 6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신청 가능한 단위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교육부의 기관평가 인증 및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국내 탑5·세계 100대 대학 될 것"

2031년 100주년 기념 새 비전 발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가 5일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31년 창학 100주년을 기념한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캠퍼스와 충주글로벌캠퍼스의 새로운 슬로건은 각각 'KONKUK WAVE 2031', 'KONKUK GLOBAL RISE UP 2031'이다.

서울캠퍼스는 'KONKUK WAVE 2031'라는 슬로건 아래 '연구와 교육으로 건국다움의 명성을 만드는 글로벌 100년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국내 TOP5·세계 100대 대학'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진전략으로는 ▲ 대형 R&D 확대를 통한 연구비 수주 5000억원 달성 ▲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한 취업률·진학률 국내 3위 도약 등을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옛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완료

일제 잔재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양시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 구(舊)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대장을 현대 한글 표기로 변환하고 디지털화해,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총 13만6343면의 부채대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데

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토지이동 연혁, 소유자명, 주소 등의 정보를 한글로 변환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조상땅 찾기 시스템과 연계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과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고교교육 기여대학 80곳에 2년간 585억

교육부,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발굴

정부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를 확대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80개 대학에 2년간 5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기본사업 외

에도 자율공모사업을 선택해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사업비는 사업관리비 7억 2400만원을 포함해 585억 3300만원이다. 이중 선발된 80여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 기본사업은 521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약 7억원이 지원된다. 선택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율공모 사업에는 총 57억 9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학교당 기본 사업비 대비 약

5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공모사업은 ▲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 고교교육 기여 가능성 ▲ 성과확산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고교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 고교교육과 대학 간 연계 확대 ▲ 대학의 대입 관련 사회적 책무성 제고 ▲ 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률은 지난해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등 전체 2.64%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해 연간 79억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

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연계도 확대해 고용부담금 감면을 꾀한다. 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7 | 해질 / 18:31

3월 6일 (木)
음력 : 2월 7일

수도권 날씨
0 ~ 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0, 동두천 -4/10, 파주 -4/9, 서울 0/10, 인천 0/8, 수원 0/9, 평택 -3/9, 양평 -3/9, 용인 0/9, 가평 -4/9

백령도 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한국골프, PGA 부진의 늪 탈출할까... 7일 아널드 파머 개막 /사진 뉴스시
▲ 유승민 체육회장, 국회 문체위 첫 참석 "변화 보여드리겠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2006년생 1인당 최대 15만원
▲ '새 구장 목표는 가을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개장

▲ 한예종 정건세, 베를린 국제 무용 콩쿠르서 금상
▲ 안정환 vs 박항서... '몽쳐야 찬다4' 축구 리그 창설

SAMSUNG

Smart LED signage for Building

바로 지금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코엑스 K팝 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삼성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연속 세계판매 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삼성전자의 글로벌 노하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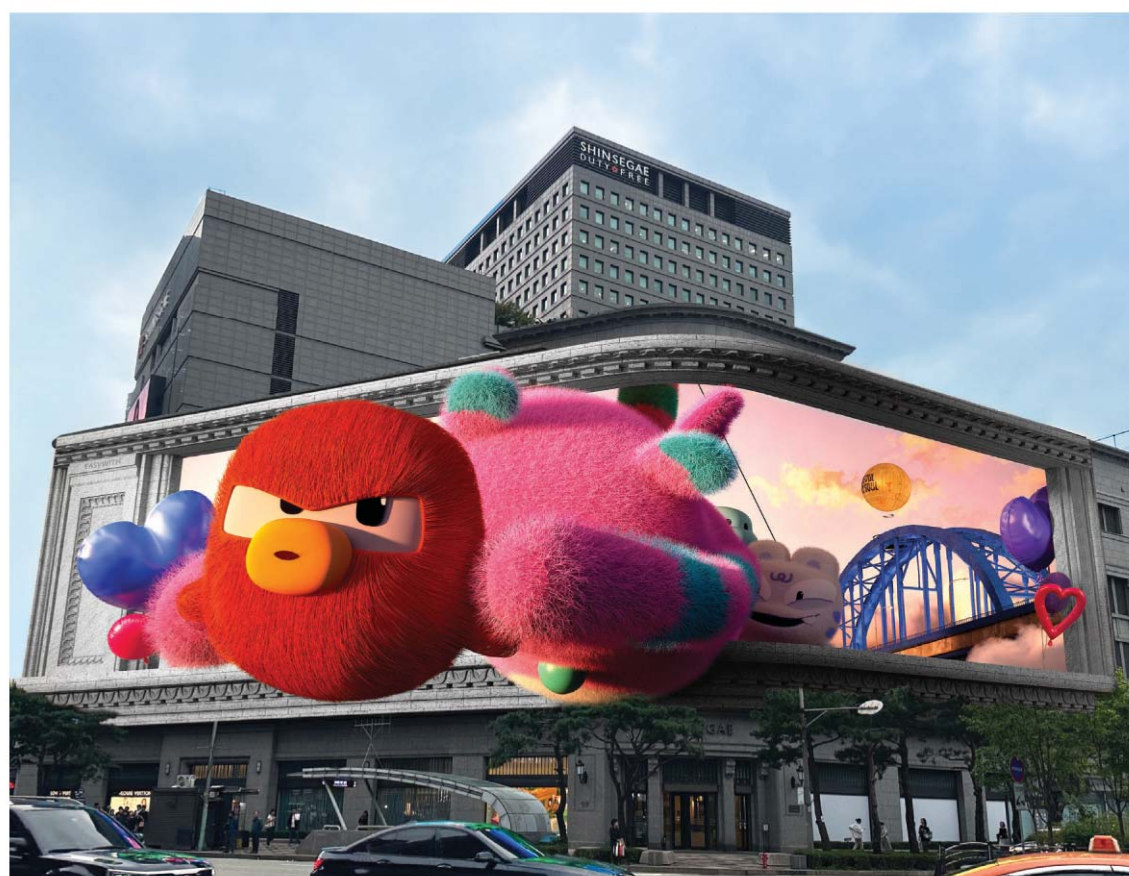
삼성닷컴 비즈니스 견적문의



* 디스트릭트의 픽셀릭 미디어아트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LED ART의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고품질 LED

플리커와 모아레를
최소화한 AI 프로세싱,
HDR10+ 기술

- ※ 플리커(Flicker): 디스플레이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
- ※ 모아레(Moire):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줄무늬 패턴

원격 제어 솔루션 적용 (별도 구매)

원격으로 제품 컨트롤이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원격 콘텐츠 배포 가능

※ 지원 기능은 모델별 상이

* 15년 연속 세계판매 1위: 옴디아 Q4 2023 Public Display Report, 판매량 기준. 단, Consumer TV 제외 * 해당 지면의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들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